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연재] 맑스 죽이기1

이정인 |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독자회원

I. 우리가 알고 있는 맑스

_ 맑스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인가?

II.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의 진의

_ 유물론적 역사파악과 역사적 유물론은 정말 같은 말일까?

III.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와 철학

_ 맑스주의는 철학인가?

맑스를 만나면 맑스를 죽여라!

최근 발간되는 몇몇 맑스주의 개설서가 아직도 스탈린주의 교과서에 바탕을 둘만큼 소련 교과서 체계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은 사회주의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입지와 실천의 지평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붕괴 이후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맑스주의를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맑스주의 정통의 계보를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죽여야 하느냐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 역시 인간인 이상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라는 방법을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 자체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가진 시대적 한계 속에서 합리적 핵심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맑스주의를 다시 되짚어 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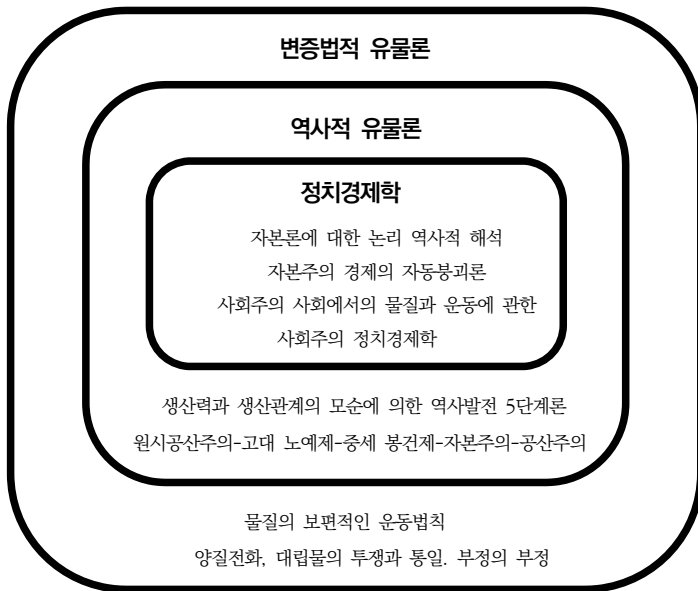
I. 우리가 알고 있는 맑스

_ 맑스주의는 체계적인 이론인가?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맑스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1930년대 이후 소련에서 창조된 이론체계이다. 스탈린주의에 비판적인 맑스주의자라 하더라도 변증법적 유물론·사적 유물론·정치경제학이라는 소련 교과서의 기본 체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다음은 스탈린주의 이론체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맑스주의라고 알고 있는 이론체계다. 한국에 나온 맑스주의 개론서들은 거의 전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체계의 구성부분들은 모두 보편과 특수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물질 일반의 운동법칙인 변증법적 유물론이 사회와 역사에 적용되면 역사적 유물론이 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단계에 적용되면 정치경제학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체계는 각기 부르주아 학문분과 체계와 대응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은 철학에,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학과 역사학이 합쳐진 사회과학에,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에 대응한다.

이러한 체계의 형성은 스탈린 시대에 이루어진 맑스주의 교과서 편찬 작업의 결과였다.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맑스와 엥겔스의 원고를 수집했다. 이렇게 모아진 원전을 바탕으로 맑스·엥겔스 전집을 편찬하고 1930년대 말부터 맑스주의 이론을 체계화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 스탈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1938년 소련 정부는 소련 국민들로 하여금 “불세비즘을 완전히 체득하고” “레닌과 스탈린의 당이 추진하는 위대한 과업의 완전한 승리 및 전세계에서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연 방불세비키공산당사 단기과정』, 흔히 『소련공산당 약사』라고 불리는 대중용 교과서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라는 스탈린의 논문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만물의 상호의존성, 자연과 사회에서의 운동·변화·발전, 양질전화,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을 변증법의 기본 법

칙으로 제시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 것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규정했다. 소련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교과서 체계는 스탈린의 이 논문에 기초했다.

스탈린은 1950년대 정치경제학 교과서 편찬 작업에도 깊이 개입하여 「소련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라는 논문을 썼다. 여기서 그는 경제법칙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상품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이는 그대로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관점이 되었다.

스탈린주의 이론체계의 문제

맑스와 엥겔스의 모든 저작은 논쟁과정에서 나왔으며 그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련 교과서들은 맑스와 엥겔스의 글을 순서와 맥락과 상관없이 인용해 이리저리 짜깁기해서 텍스트 자체를 신화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최고의 철학 저작으로 극찬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주요 근거로 인용한 『자연변증법』은 엥겔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쓴 원고들로 출판한 적이 없는 글이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한 페이지 안에서도 거의 20년 간격을 두고 쓰여진 원고들을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이 저작을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탈린주의 이론체계는 맑스주의가 노동자들의 혁명적 이론에서 지배계급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재구성된 결과였다. 스탈린이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을 쓴 1930년대 말에는 소련에서 권력투쟁의 최종적 승자가 명확해졌다. 반대파는 전부 숙청됐고 1928년부터 시작된 두 번에 걸친 경제계획의 결과, 대공황으로 혼란에

빠진 사유를 증가하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화를 이룩했다.

1936년 새로 개정된 소련 헌법은 소련이 계급이 사라진 전(全)인민 국가가 되었으며 마침내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계급의 폐절과 함께 국가일반이 소멸된 사회이며 상품과 화폐가 폐절된 사회라고 생각했다. 현실의 소련사회와 맑스·엥겔스가 생각한 사회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사회주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1930년대 이후 소련 사회의 지배권을 확고히 굳힌 국가 관료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내외부의 급격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소련의 새로운 지배층은 맑스와 엥겔스의 모든 저작을 성서적인 절대 권위를 가진 텍스트로 만들고 그 구절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떼어내 조각조각 낸 다음 자기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서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려 시도했다.

이런 교과서 체계는 사실 완벽한 이론주의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맑스주의 이론을 숙지하면 역사발전 법칙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회운영은 그런 법칙을 통달한 당 관료들에게 위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맑스주의는 대중투쟁적인 요소보다는 단계론적이고 점진적인 사회발전을 강조하는 이론적 체계로 변형되었다.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부분

그러나 맑스주의를 하나의 완결된 이론체계로 이해하는 경향을 온

전히 스탈린의 것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인터내셔널 사민주의자들의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은 1913년 레닌이 쓴 「맑스주의의 세 가지 원천과 세 가지 구성부분」이라는 소논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레닌은 이 짧은 논문에서 철학적 유물론과 정치경제학, 사회주의를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들의 세 가지 원천은 독일 고전철학과 영국 고전경제학, 그리고 프랑스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주의 이론의 발전을 현실 운동과 독립적인 이론적 발전의 산물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사민당의 지배적인 이론가였던 카를 카우츠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는 맑스주의 이론과 노동운동이 각각의 발전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다.

카우츠키에 의하면 부르주아 학문이 최고 형태로 발전·완성된 것이 맑스주의 이론이며 그 이론이 노동운동과 결합한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주의는 논외로 치더라도 독일의 철학과 영국의 경제학은 부르주아 학문이었는데, 카우츠키 식의 이해 방식에 따르면 맑스주의는 이런 부르주아 학문이 가장 완성적인 형태로 일관되게 발전한 것이다.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치의식의 외부도입을 얘기하면서 카우츠키의 이런 생각을 근거로 인용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은 나란히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전제조건 아래에서 생겨난다. 현대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깊이 있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실로 현대의 경제학은 현대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생산의 조건이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이 아무리 원하여도 양자 중 어떤 것도 창출하지 못한다. 둘은 모두 현대의 사회 과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과학의 담지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현대 사회주의는 이 계급의 개별 구성원들의 머릿속에서 생겨났으며, 그들에 의해 지적으로 탁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 사회주의 의식은 외부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에 도입된 것이지 그 투쟁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 나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역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맑스의 말처럼 현실과 분리된 이론의 독자적 발전이란 존재할 수 없다. 맑스와 엥겔스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말을 채택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이 체계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미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이론의 주요 원칙들은 그 운동의 기본적인 경향 속에 존재했던 것이며, 맑스와 엥겔스의 이론은 이런 현실 운동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론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카우츠키 류의 논리는 지식인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할 뿐 아니라 이론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는 계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레닌에 대해 말하지 않기」라는 논문을 쓴 영국의 사회학자 사이먼 클락은 플레하노프와 레닌이 제기한 철학적 유물론은 사실상 부르주아 철학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인민주의자, 즉 혁명적 민주주의자(급진적 부르주아)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레닌이 공장 내 노동조합적인 투쟁만으로

사회주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정치적 의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실 그 정치적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차르 반대·보통선거제 쟁취 같은 민주주의적인 것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플레하노프와 레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인터내셔널 사민주의자 전반의 문제였다. 사민주의자들은 맑스주의를 사회·역사에 대한 일종의 과학 법칙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로 인해 이들의 실천적 태도는 상당히 수동적이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어차피 붕괴할 테니 그런 결정적인 시기까지 노동자 계급은 힘을 보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야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중의 부정형적 투쟁을 무정부주의라고 꺼려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문제, 먼 미래의 문제였으며 실천적으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

러시아와 유럽의 사민주의의 전개 양상이 달랐던 이유는 레닌과 플레하노프가 인민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유럽과 달리 차르 치하의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러시아 사민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혁명적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혁명적 경향의 사회주의자들이 소수파였던 서유럽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레닌을 비롯한 전 투파의 입장이 사민주의 내부에서 다수파까지는 아니라 해도 거의 대등한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만들어진 맑스주의

맑스주의가 하나의 완결된 체계적인 이론이라는 사고는 이미 제2인터내셔널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이었다. 단지 철학·정치경제학·사회주의라는 체계가 소련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사적 유물론·정치경제학 체계로 변형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들은 제2인터내셔널 시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플레하노프와 레닌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맑스주의에 독립적인 철학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사민당 이론가 프란츠 메링은 1893년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소책자를 썼다. 부르주아 경제학에 대응하는 맑스주의 경제학이 있다는 사고는 훨씬 더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런데 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사실 맑스와 엥겔스가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말이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노동자출신의 철학자 디츠겐이 1880년대에 썼다가 잊혀진 말이었다. 이 단어는 1890년대 들어 플레하노프가 다시 사용하면서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헤겔 철학에 경도된 플레하노프의 용어 사용과 달리 어떤 철학적 내용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개념과 실재의 불일치를 파고드는 방법적 측면을 강조한 말이었다.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단어 역시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말이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 중에 가장 비슷한 것

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라는 말이었다. 맑스가 죽은 뒤 말년의 엥겔스도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만들어서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은 독일 사민당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으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프란츠 메링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메링이 사용해서 유행시킨 말을 엥겔스가 따라 쓴 것이 아닐까 한다.

맑스와 엥겔스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라고 했던 것은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로 이 역시 일련의 역사법칙들과 동일시되는 오늘날의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기이한 일은 정치경제학이란 말이 맑스주의 경제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둔갑한 것이다.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은 원래 부르주아 경제학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고전경제학자들은 유럽 언어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한계 때문에 자신들의 이론체계에 “정치”나 “국민” 같은 말을 앞에 붙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이란 본래 그냥 부르주아 경제학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이었던 것이다.

오이겐 뒤링의 과학혁명

그렇다면 맑스주의 체계가 철학·정치경제학·사회주의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레닌의 주장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맑스주의를 이런 식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흔히 『반뒤링론』으로 불리는 엥겔스의 저작 『오이겐 뒤링의 과학혁명』이었다. 『반뒤링론』은

긴 서설과 함께 1부 철학, 2부 정치경제학, 3부 사회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반뒤링론』이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비판의 대상인 오이겐 뒤링이 자신의 이론체계를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에서는 1860년대부터 대중적인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1863년 독일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자조직 <전독일노동자동맹>이 창설되었을 때 맑스와 엥겔스도 잘 알고 있던 법률가 페르디난트 라살레가 지도자로 옹립되었다. 흔히 라살레 파로 불리던 이 조직은 곧 독일노동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한편 1864년 첫 번째 인터내셔널이 창립되고 맑스가 그 총평의회 서기로 활동하면서 독일에서도 인터내셔널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맑스의 지지자들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1869년 아이제나흐에서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을 창립했는데, 그것은 맑스 파 혹은 아이제나흐 파로 불리며 라살레 파와 함께 독일 노동운동의 양대 정파가 되었다.

1875년 이들 두 정파는 고타에서 통합 당 대회를 개최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통합에 부정적이었지만 고타 대회이후 새로 등장한 독일사회민주당은 비스마르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이처럼 사민당이 막 형성되던 시기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이 운동에 신진이론가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베를린대학교 강사인 오이겐 뒤링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보다 열 살 정도 연배가 젊은 오이겐 뒤링은 처음에는 맑스에게 제자를 자처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1870년대 들어서자 나뉘는 독특한 사회주의 이론을 창시하여 맑스와 엥겔스 등 선배이론가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뒤링은 1870년대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세 권의 방대한 책을 연달아 내놓았는데,

1871년에 『국민 경제학 및 사회주의의 비판적 역사』, 1873년에 『재정정책의 주요 문제를 포함한 국민경제학 및 사회경제학 코스』, 1876년에는 『엄밀한 과학적 세계관 및 생활 형상으로서의 철학 코스』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세 권의 책은 각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사회주의관과 경제학적·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뒤링은 철학과 경제학을 망라하는 이론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체계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당시까지 맑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이론 전반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책을 쓴 적이 없었다. 나중에 중요한 원전으로 자리 잡은 『경제학·철학 수고』나 『독일이데올로기』 같은 문서는 당시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저작이었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출판된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은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신성가족』, 『철학의 빈곤』, 『공산당 선언』, 『프랑스혁명사』 3부작과 『자본론』 1권 정도가 다였다. 그것도 1865년에 출간된 『자본』을 제외하면 거의 다 20~30년 전 책들이었다. 『자본론』조차 본래 맑스의 문체가 그리 친절한 편이 아닌데다 딱딱하고 어렵기까지 해서 그 당시 널리 읽힌 책이 아니었다.

반면 철학·경제학·사회주의라는 체계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해설한 뒤링의 책들은 큰 인기를 끌며 신생 독일사민당 내에서 급속히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그러자 사민당 내의 맑스 지지자들이 맑스와 엥겔스에게 뒤링을 비판하는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 역할은 이미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맑스 대신 엥겔스한테로 넘어갔다. 그래서 엥겔스는 1877~78년 2년에 걸쳐 독일사민당 기관지에 『오이젠 뒤링 씨의 과학 혁명』 즉 흔히 소위 『반뒤링론』이라고 불리는 책을 연재했다.

뒤링의 승리

따라서 『반뒤링론』의 편제는 원래 뒤링의 저서를 하나씩 비판하는 체계였다. 1부 철학은 뒤링의 『철학 코스』를, 2부 정치경제학은 『국민경제학 및 사회경제학 코스』를, 3부 사회주의는 『국민경제학 및 사회주의의 비판적 역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그럼 만일 레닌의 생각처럼 맑스주의 이론이 철학·정치경제학·사회주의로 구성돼 있는 체계라면, 우연찮게도 맑스주의의 체계는 뒤링과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반뒤링론』의 구성방식은 뒤링을 비판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엥겔스는 서문들과 일반론 서설에서 이론적 체계화의 위험성을 거듭 제기했다. 엥겔스는 뒤링이 워낙 완결된 체계로 책을 써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이번 기회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진해 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책이 뒤링의 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맑스주의 이론체계를 철학·경제학·사회주의로 분류하는 사고가 본래 그 창시자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뒤링처럼 철학이라는 영역에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역할이 사멸했다고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명확하다. 그가 제기하는 유물론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반면 스탈린주의 교과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프롤레타리아트 “철학이자 세계관”이라고 주장한다.)

엔겔스는 유물론적 역사파악과 잉여가치를 매개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의 비밀의 폭로가 맑스의 가장 위대한 공로이고 이 두 가지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는 과학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철학·정치경제학·사회주의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과 잉여가치의 발견이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 맑스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자본론』도 『공산당선언』도 아닌 『반뒤링론』이었다. 이전까지 맑스주의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맑스주의자로 “개종”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도 『반뒤링론』을 읽고 맑스주의의 올바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오히려 『반뒤링론』 덕분에 맑스 붐이 일면서 1880~90년대 맑스와 엔겔스의 다른 저작들이 재출간되기 시작했다. 『반뒤링론』이 독일 사민당 당원들에게 필독서가 되면서, 뒤링은 망각되고 『반뒤링론』의 생명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불멸성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반뒤링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 맥락은 사상되고 『반뒤링론』 자체가 자기완결적인 교과서적 텍스트로 자리잡아서 서게 되었다. 그 결과 레닌의 『세 가지 원천과 세 가지 구성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반뒤링론』의 편제방식은 다음 세대의 맑스주의자들에게 그대로 맑스주의 이론의 기본 체계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스탈린은 죽었지만 스탈린주의는 살아남다

제2인터내셔널 사민주의자들은 맑스주의 이론의 우월함이 체계적이고 완결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이후 스탈린

주의와 같은 이론체계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스탈린주의 이론체계는 엥겔스가 말하는 유물론과 달리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수미일관한 논리가 관통하는 내적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구성된 이론체계이다. 그 기초는 물질운동의 일반적 법칙인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런 체계는 실제 현실에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과학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로 소련에서는 멘델의 유전자 법칙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다가 유전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탈린 사후 권력을 장악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격렬히 비판했지만, 스탈린주의 이론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스탈린이 당의 좌익(트로츠키), 우익(부하린), 철학과 언어학에 있어 관념론들(테보린, 마르)과 벌인 사상투쟁은 여전히 일반적인 노선(General line)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1956년 스탈린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담긴 비밀연설에서 흐루시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당이 트로츠키주의자들, 우익주의자들 그리고 부르조아주의자들과의 격렬한 투쟁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레닌주의의 모든 적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효과적인 결과는 당을 강화시키며,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스탈린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비교적 자유로웠던 1960년대에는 제한된 형태 이긴 하지만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기본 이론체계에 대한 논쟁이 있긴 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서 엥겔스가 『반뒤링론』과 『자연변증법』에서 제기한 “부정의 부정 법칙”을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수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래서 다시 “부정의 부정” 법칙이 소비에트 교과서에 복원되는 과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변증법적 유물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

동독에서는 서구 좌파에서 유행하던 프랑크푸르트학과 등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몇몇 철학자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인간의 실천을 경시하는 객관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실천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맑스주의 철학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은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시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동구권 내부에서 이론 논쟁은 사실상 80년대 후반까지 중지되었다.

맑스를 만나면 맑스를 죽여라

소련 교과서 체계는 한국에 80년대에 그대로 수입되어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소련 아카데미나 동독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정치경제학 교과서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었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철학에세이』나 『철학의 기초이론』 같은 개설서들 역시 스탈린주의 교과서의 해설에 불과했다. 심지어 최근에 맑스주의 개설서라고 나오는 몇몇 책들도 여전히

스탈린주의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주의라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입지와 실천의 지평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닌 것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를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했다. 1992년 이진경이 「맑스주의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논의는 주로 죽은 맑스와 산 맑스를 가리는 문제, 즉 “맑스→엔겔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소위 맑스주의 정통의 계보를 어디까지 살리고 어디까지 죽여야 하느냐에 집중되었다.

레닌을 살리기 위해 스탈린을 죽였더니 레닌과 스탈린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레닌까지 죽이게 되었다. 레닌과 스탈린 모두 제2인터내셔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그럼 제2인터내셔널에 영향 끼친 사람은 엔겔스나 엔겔스까지 죽이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맑스라도 살리자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맑스와 엔겔스의 연관성을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맑스까지 죽이고 나아가 사회주의 이론 전체를 부정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맑스와 엔겔스 역시 인간인 이상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억지로 산 맑스와 죽은 맑스를 가리고 소위 진짜 맑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라는 방법을 맑스와 엔겔스의 저작 자체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가진 시대적 한계 속에서 합리적 핵심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 속에서 맑스조차 과감히 죽일 수

있어야 우리 운동이 죽은 이론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물신숭배를 넘어
현실 속에서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II.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의 진의

_ 유물론적 역사파악과 역사적 유물론은 정말 같은 말일까?

엔겔스는 『반뒤링론』에서 잉여가치의 발견과 더불어 유물론적 역사 파악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통 “유물론적 역사파악”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유물론”이란 것과 엔겔스가 말한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 정말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일까?

보편적인 역사 법칙으로서 역사적 유물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사유(史唯)라고 부르는 역사적 유물론은 역사 발전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류역사는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현대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필연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 이런 설명의 근거

가 되는 것은 1859년에 맑스가 쓴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일정한 필연적 관계들, 즉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들에 들어선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며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그에 조응하는 그러한 실재적 토대를 이룬다. 물질적 생활방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 인간들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관계들 혹은 이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들과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관계들은 이러한 생산력들의 발전형태들로부터 그것들의 족쇄로 변전한다. 그대에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칼 맑스,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여기서 맑스는 하나의 사회구성체는 그것이 포용하고 있는 생산력들 모두가 발전해야 내부에서 부화된 더 발전된 새로운 생산관계들이 낡은 것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 생산양식들을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들”이라고 썼다.

이 중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말은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들 중에서 이 글에서 단 한 번 별다른 설명도 없이 언급된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였다.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빼고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현대자본주의에다 그 앞뒤로 나중에 엥겔스가 언급한 원시공산제와 미래에 도래할 공산주의 사회를 덧붙여 역사 5단계설이 맑스주의 정통이

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역사 5단계설이 유럽을 넘어 보편적인 역사법칙으로 수용된 과정에는 1920년대 벌어진 중국 사회의 성격 논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면 중국혁명의 성격을 논의하며 코민테른 내부에서는 중국 사회를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볼 것인가, 봉건제로 볼 것인가가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이 논쟁은 결국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의 불분명성과 5단계설을 보편적인 역사법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욕구,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자국의 후진성과 정체(停滯)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 중국 맑스주의자들의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중국사회를 신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 코민테른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중국을 유럽의 전(前)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봉건제로 규정한다는 것은 중국사 역시 5단계 역사단계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역사 5단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역사법칙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맑스주의 역사학의 주요 쟁점은 자기 나라 역사에서 어디까지가 고대이고, 중세이고, 근대인지를 따지는 것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맑스주의 경제학자 백남운이 한국사 역시 “세계사적 일원론의 역사법칙에 의하여 다른 제 민족과 동궤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라고 선언하며 1930년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작업을 한 이래, 삼국시대가 노예제냐 아니냐, 고려가 노예제냐 봉건제냐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그러나 5단계 역사설의 기초가 되는 고대, 중세, 근대라는 역사구분 자체가 철저히 자기네 역사에 대한 유럽인들의 자기의식이기 때문

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18세기 유럽인들은 르네상스 이후 새로운 시대, 즉 현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의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로 인식했다. 물론 유럽에서도 고대, 중세, 근대 사이의 경계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유럽사에서는 이런 시대 구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비서구 지역에서는 이런 구분이 맞을 리가 없다.

결국 역사 5단계설의 보편적인 적용은 민족적 열등감과 자긍심의 기묘한 결합물에 불과했다. 그것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나 한국 모두 자본주의 맹아론이 제기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다면 이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로 발전했을 거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자본주의 침투가 없었다면 중국이나 한국이 과연 자본주의로 나아갔을까 하는 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문제이다.

다섯 개의 역사발전단계는 철의 법칙인가

1939년 소련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 형태 — 자본관계, 또는 본원적 축적의 형성에 선행하는 과정에 대하여」라는 맑스의 유고가 발표되자,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이 글에서 언급된 아시아적 공동체의 토지 소유형태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닐까 추측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정확한 시대적 위치는 오리무중이었다. 다만 이 윌고는 맑스가 역사 5단계설과 같은 단선적 역사도식에 결코 사로잡힌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역사발전법칙에 대한 논쟁은 유럽에서도 벌어졌는데 특히 러시아에

서 그러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서유럽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서유럽에서 농노제는 영국의 경우 14세기에 거의 사라졌고, 프랑스에서도 서서히 약화되다가 대혁명 이후 완전히 소멸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1861년에야 농노해방령이 선포되었고,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도 봉건적 잔재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세기 말에 과연 러시아가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인민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인민주의라고 불리는 러시아 특유의 급진적 민중운동의 뿌리는 18세기에 벌어졌던 여러 농민반란보다는 오히려 1820년대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데카브리스트 반란은 근대화를 요구하는 소수 귀족들의 상층 반란이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묘사한 대로 나폴레옹과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진군한 러시아 귀족들은 발전한 서유럽 사회를 접하고 서구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받아들여 러시아 사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데카브리스트 반란 이후 1830~40년대 들어 러시아 지식인들은 헤겔 철학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창조하며 서구적인 자유주의를 꿈꾸었다. 결국 1860년 농노해방령이 선포되고 공식적으로 봉건제가 폐지되지만 이 개혁은 어느 사회계급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절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오히려 지식인들이 이끄는 민중운동이 더욱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농노해방을 선언한 알렉산드르 2세가 과격한 인민주의자들의 테러에 의해 암살되고 러시아는 정치적 반동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혁명이 싹트기 유리한 토

양이 형성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바쿠닌의 번역에 의해 『자본론』이 처음 외국어로 출간된 곳이 러시아였다.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은 『자본론』을 읽고 자본주의가 몰고 올 폐해를 절감한 나머지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르’라고 불리는 러시아 농촌의 공동체적 생산방식에 기초하여 바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880년대 들어 인민주의자 일부에서 러시아 최초의 맑스주의자들이 생겨났다. 탄압으로 인해 망명한 인민주의자 일부가 당시 서유럽에서 한창 부상 중이던 노동운동과 맑스주의를 접하고 맑스주의자로 개종했던 것이다. 플레하노프, 베라 자술리치, 악셀로드 등 러시아의 1세대 맑스주의자들은 해외에서 <노동해방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이론적으로 맑스주의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러시아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인민주의라는 전통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인민주의 이론가들은 러시아에서는 시장이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러시아의 합법적 맑스주의자들은 시장이 협소하더라도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서 불균형적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논리는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론에 있어서 불비레설이라는 독특한 이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 논쟁에는 1880년대 말년의 맑스가 직접 개입했었는데, 러시아 최초의 맑스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라 자술리치가 인민주의자들과 논쟁하다가 맑스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편지를 썼기 때문이었다.

맑스는 이 문제에 답변하기위해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등 실제로

공을 많이 들었다. 초고를 여러 번 고쳐 쓴 끝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편지는 짧은데, 여기서 맑스는 베라 자술리치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한다.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맑스는 만일 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다면 당시 러시아 농촌의 공동체적 생산이 자본주의 폐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썼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의 일반적 견해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1890년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필연적이라며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준 엥겔스의 태도와도 달랐다.

이런 맑스의 입장은 1차 대전 이후 레닌의 입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레닌 역시 초기 인민주의자들과 논쟁 시절만 해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전형적인 러시아 맑스주의자였다.

1905년 혁명 때에도 레닌은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자의 두 가지 전술』을 통해 독특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2인터내셔널 맑스주의에 충실한 입장을 펼쳤다. 즉,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혁명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온다는 2단계 혁명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런 맑스의 입장은 80년대 후반 한국의 사회구성체 논쟁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917년 혁명에서 레닌은 국민경제적 분석 뛰어넘어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러시아에서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으로 시작하지만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맑스와 레닌이 소위 역사발전 5단계를 역

사유물론의 철의법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곧이곧대로 현실에 적용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5단계론 같은 도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통해 현실 그 자체로부터 결론을 도출했으며 오히려 역사 단계론은 1917년 레닌을 반대한 멘셰비키나 볼셰비키들처럼 현실 운동의 전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원적 모순론으로 생산력-생산관계

이런 역사 단계론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토대가 바로 이른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한 역사의 발전”이라는 논리도식이다. 여기서 내가 “철학적”이라고 한 것은 이 용어가 워낙 애매모호한 말이기 때문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말은 맑스와 엥겔스가 워낙 여러 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후학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면이 있다. 맑스주의를 헤겔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시도한 이탈리아 철학자 콜레티는 맑스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말을 쓴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 결국 맑스주의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모순”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복잡한 사회 분석에 갖다 쓰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를 쓰면서 헤겔 철학과 단절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철학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850년대 후반 『자본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맑스는 헤겔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 무렵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랜만에 헤겔의 『논리학』을 펼쳤다가 『자본론』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감을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맑스에게 헤겔의 영향은 「헤겔 법철학 비판」, 「경제학·철학 수고」와 같은 『독일이데올로기』 이전의 저작들과 『자본론』을 쓸 무렵의 저술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자본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원고들의 모음인 『정치경제학 비판요강』이 그러하다.

1859년의 서문에서 맑스는 사회를 건축물에 비유하여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 건축물 전체를 경제적 사회구성체라고 불렀다. 이 건축물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인 생산관계의 총체이며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데올로기, 철학, 예술과 같은 사회의 의식적 형태들이 올라앉아 있다.

스탈린주의 교과서들은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들을 구석구석 살핀 끝에, 생산수단은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의 결합이고 생산력은 생산수단과 인간의 결합이며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합 등등 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사실 맑스의 용어 사용은 그렇게 엄밀하지 않다.

맑스가 말하는 생산관계는 인간이 현실적 물질적 생활관계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축학적 비유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물질적으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맑스는 이 글에서 토대에 생산력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스탈린주의에서는 생산력을 추상화시켜 독자적으로 역사를 추동하는 어떤 모종의 단선적인 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맑스는 생산

력을 전부 복수로 사용했다. 생산력이 아니라 생산력들 혹은 제 생산력이 정확한 번역이다. 더구나 우리말에는 단복수를 구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생산력을 굉장히 추상화시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맑스가 얘기했던 생산력들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기술일 수도 있고 분업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다. 또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도식적으로 분리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경우 9~10세기에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모든 징조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생산력을 단순한 기술로 치부한다면 중국의 앞선 기술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계가 등장하는 것도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변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 자체가 사회변혁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다. 유럽에서는 1768년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을 불러오기 이전에 이미 15세기부터 거대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한 것은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견하고 불과 8년 뒤의 일이었다.

복잡한 사회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하나의 모순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선적인 사고방식이다. 맑스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적이 없으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용어법은 헤겔 철학의 잔재라고 보는 게 옳아 보인다.

자본주의 이행논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논리는 사실 헤겔 철학이 유럽중심주의로 비판받는 것처럼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생산력과 생

산관계의 모순에 기초한 역사발전 법칙이라는 개념의 견고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1950년대 역사유물론의 실제 적용을 두고 국제적으로 벌어진 논쟁인 이른바 자본주의 이행논쟁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맑스주의 경제역사가이며 리카도 연구로 유명한 모리스 돕은 1946년 『자본주의 발전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1·2장에서 자본주의를 성격을 규정하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의 동력들을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먼슬리 리뷰〉를 발행하던 폴 스위지가 비판 논문을 게재하고, 모리스 돕이 다시 반박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이 논쟁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우수한 맑스주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14년 동안 계속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모리스 돕은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 서유럽 봉건제 내부적 요인을 중시하고, 폴 스위지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돕은 14세기에 유럽에서 봉건제가 내부 모순을 견디지 못해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봉건영주들의 사치욕구가 급증하면서 농노에 대한 과잉착취가 일어났고 이를 견디지 못한 농노들이 장원에서 이탈하고 저항하면서 봉건영주의 지배력이 급격히 쇠락했다는 것이다. 반면 폴 스위지는 그런 봉건경제 내부의 문제보다는 11세기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상업 발전이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대개 모리스 돕의 우세승으로 평가되지만, 14세기에 봉건제가 붕괴했다면 16세기 자본주의 등장까지 2세기 가까운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폴 스위지의 지적은 날카로운 면이 있다. 스위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시기가 봉건제도 자본주의도 아닌 “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 시기”라는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오면서 집중

적인 비판을 자초했다.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를 강조하는 모리스 돕은 폴 스위지의 주장처럼 15~16세기 유럽의 절대왕정이 전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조응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미 부르주아가 우세했다면 17세기 시민혁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왕정의 본질을 중앙집권적 봉건적 착취로 설명했다.

모리스 돕의 관점은 주류적인 입장에 보다 가까웠으나 그의 경우에도 사실 생산력의 발전으로부터 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기 보다는 봉건경제 내부에서의 분화와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이행의 동인으로 우선시했다. 이런 모리스 돕의 관점은 이후에도 페리 앤더슨이나 로버트 브레너로 이어졌다. 브레너는 2차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의 원동력이 영주와 농민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을 보다 더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들은 생산력주의에 비해 긍정성은 있으나 유럽 중심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근래에는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한 유럽지역에서는 모리스 돕의 주장이 맞는 거 같고 자본주의가 외부에서 침투한 비유럽 지역의 자본주의로 이행은 폴 스위지의 주장이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구인들에게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연속적이고 필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유럽인의 시각에 봤을 때 봉건제의 붕괴가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지만, 봉건제가 붕괴했다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로 이어졌냐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비서구권의 맑스주의자들은 봉건제를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필연적

으로 거쳐야 하는 시기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에서도 전근대 사회 일반을 봉건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나타난 봉건제와 아시아의 전근대사회는 다르다.

그렇다면 봉건제란 대체 무엇일까? 폴 스위지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규정으로 봉건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자본주의 이외의 모든 사회가 그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봉건제란 엄격하게 8세기 14세기까지 유럽에서 나타난 특수한 사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과연 송나라 이후의 중국이나 조선을 과연 봉건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봉건제의 핵심은 토지를 양도할 수 없고 농민이 토지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지배자가 땅을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조선에서 농민은 유럽적 의미에서 자영농에 더 가까웠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의 이행은 필연적인가

봉건제는 사실상 지속가능하기 힘든 체제였다. 그 성격으로 볼 때 봉건제는 정복국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형태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 봉건제는 일시적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건제가 내부 모순에 의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모리스 돕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흔히 중세가 천 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봉건제의 전성시대는 8세기 이후 12세기까지 4세기 정도에 불과했다. 봉건제는 이미 12세기 때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폴 스위지는 봉건제가 붕괴한 14세기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

전하기 시작한 16세기 사이에 2세기 가량 빈틈이 생긴다고 모리스 돕을 비판한다. 그러나 폴 스위지도 이 시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연히 이어진 것 같아 보이는 두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14~15세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492년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것이 유럽에서 자본주의로 발전에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속이론가로 유명한 군더 프랑크는 90년대 들어 월러스틴 등 서구의 세계체제론자들과 달리 유럽의 근대 이전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체제가 존재했으며 유럽은 나중에 여기 편입되었을 뿐이라는 독특한 세계체제론을 주장했다. 그는 1998년에 쓴 『리오리엔트』를 통해 이런 주장을 전개했는데, 사실 그의 주장 자체는 상당히 무리해 보이지만 아메리카의 발견에 따른 유럽 사회로 대량의 귀금속 유입이 유럽이 세계체제에서 중국을 추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 봄직한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불과한 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유럽에서 귀금속의 유통량은 네 배가 늘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귀금속의 대량 유입이 없었다면 유럽사회가 자본주의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맑스도 『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자본주의 생산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 유입이 새로 필요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였다. ...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의 발견, 원주민 말살

과 노예화와 광산에 매장, 동인도에 대한 정복과 약탈의 시작, 아프리카를 상업적인 흑인 사냥터로 만든 것은 자본주의 생산 시대의 장밋빛 여명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런 목가적인 소행들이 시초 축적의 주된 동력이었다. (『자본론』 1권)

대량의 귀금속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 즉 가격혁명이 자본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화폐로 지대를 받던 귀족과 임금노동자들은 몰락하고, 중간층인 부르주아는 큰 이득을 보면서 유럽에서 부르주아가 성장하는 데 가 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의 유입으로 토지 이외에 추구할 수 있는 부의 형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전자본주의적인 농업 경제에서 부의 축적은 한계가 있다. 토지는 정복하거나 막 늘릴 수가 없고 토지의 생산력을 개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방대한 대토지 소유도 다음 세대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쪼개지기 마련이다. 중국에서 대토지 소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균분상속 제도의 전통 때문이었다.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유럽 귀족들 중에서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예가 있었다.

금의 대량 유입은 금을 추구하는 중금주의 추구하고 중상주의를 낳았다. 그 다음에 축적한 부를 가지고 생산이 자급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관계가 변화했다. 토지를 가진 세력들이 몰락하고 더 많은 귀금속과 동산을 가진 자들이 득세했다. 이 새로운 재산 소유자들이 귀족출신이든 중간계급이든 그 출신은 상관 없었다.

중국은 이미 9세기경에 전자본주의적인 모든 게 등장했다. 농업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생산력이 최고조로 올랐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국이 왜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송나라 시대

의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혁신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본주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부의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 중국은 항상 화폐부족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오히려 유럽보다 지폐나 어음과 같은 비금속적인 교환수단이 먼저 등장하고 발전했다. 중국의 경우 사회발전으로 물동량은 엄청난데 이를 원활하게 하고 상업과 생산의 발전을 더욱 자극할 매개와 축적의 수단이 부족했다.

요컨대 중국의 경우 이미 9세기 경 농업경제에서 물질적인 발달의 한계까지 도달했으나 이것이 새로운 사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업적 발달을 촉구하는 외부적 요인이 필요했는데, 이게 안 되면서 다시 사회가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의 발견 이후 중국에도 유럽과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양의 귀금속이 유입되었지만, 유럽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유입된 금은 유럽처럼 부의 축적을 위한 동기유발보다는 기존의 부족했던 교환의 매개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에서는 화폐유입으로 가격혁명이 일어난 데 비해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에는 더 많은 귀금속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자영농은 봉건제 붕괴 이후 형성되었는데 맑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영농의 경쟁과 계급분쟁을 통해 부르주아가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북위 시대 토지개혁 이후 자영농 사회가 거의 천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않았다.

조선이나 중국은 자영농 사회 위에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얹혀 있

는 체제였다. 과거제를 통해 지식인이 통치를 수행하는 중국의 관료제는 세습 귀족이 지배하는 유럽인의 눈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이었다. 18세기까지 볼테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지식인들이 중국이 더 우월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유럽에서는 14세기 이후 중앙집권 체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귀족과 달리 교육받은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층이 등장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만일 봉건제 붕괴 이후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인한 화폐적 자극이 없었다면 유럽도 중국이나 조선처럼 이미 형성되고 있던 전문 지식인층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자영농 사회로 발전해 나가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아메리카의 발견이 과연 필연적인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지구에 아메리카가 있었고 거기에 우연히 금이 많았을 뿐이다. 신과 같은 초월적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연이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우연이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5단계 발전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보다 물질적인 생활관계가 앞선다는 것,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 결정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은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파악과 이해. 그것을 적대하는 이론에 맞서 끊임없이 자신의 파악을 혁신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맑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뤼메르 18일』의 도입부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자기마음대로, 즉 자신이 선택한 상황 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상황 하에서 만든다.”고 썼다. 때문에 절대적인 역사의 철의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상황에 제약받지만 객관적인 상황 역시 인간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무관하게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과 달리 사회에 대한 법칙성을 파악할 경우 그 파악 자체가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법칙성이 절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은 부르주아 사회과학이 흔히 그러하듯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완전히 대상화시켜 법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주체의 실천적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발터 베나민은 스탈린주의와 사민주의자들의 역사인식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끌고 들어온다.

한 장기 자동기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기계는 사람이 장기를 두면 항상 적절히 응수해서 언제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터어키 의상을 하고 입에는 담뱃대를 문 인형이 넓은 상자 위에 놓여진 장기판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상자의 사방에는 거울을 붙여 놓아 그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기 고수인 자그마한 꼬추가 그 상자 안에 앉아서 끈으로 인형의 손놀림을 조종하고 있었다. 우리는 철학에서도 이러한 장치와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항상 승리하게끔 되어있는 인형은 〈역사적 유물론〉이다. 이 인형이 만일 이제는 작고 추악해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신학의 도움을 얻는다면, 누구든지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철학테제는 거의 암호수준으로 난해한 글이지만 역사유물론을 체스를 두는 자동기계인형으로 한 이 비유는 상당히 그럴 듯하다. 이 체스 기계는 겉보기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스 고수인 인간이 그 속 숨어 상대방의 수에 대응하여 승리를 거둔다. 이는 법칙으로 자동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주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의 진의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은 자연과학자가 자연을 대상화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역사와 사회 속에는 이미 주체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에 대한 파악 속에서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과 그 조건을 파악 하는 것이다.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주관화를 배제하기 위해 분석의 방식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객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면 제2인터내셔널과 스탈린주의는 역사를 절대적으로 객관 법칙화한 나머지 인간이 실천할 게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천적 난점에 빠지게 들었다.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 속에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때 당은 선지자로 붕괴의 때를 알려준다는 것. 일상적인 시기에는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된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승리가 있는 것이며 역사의 결과는 주체의 집단적인 실천에 따라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당한 맑스주의적 관점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는 세계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단일한 성격의 사회로 통합했다. 따라서 흔히 과학성이라고 이야기되는 맑스주의의 보편성은 자본주의 분석에 있다. 지금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모든 인간사회에 맑스가 자본주의에서 추출한 원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III.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와 철학

_ 맑스주의는 철학인가?

스탈린주의 교과서에 의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맑스주의의 철학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철학이자 세계관”으로 규정되는데, 그것은 물질 만물의 운동을 규정하는 몇 개의 원리들로 정의된다. 1960년대 구조주의 맑스주의를 창시한 루이 알튀세르는 철학을 과학의 과학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철학을 다른 분과학문들의 근거가 되는 메타과학으로 바라보는 것은 철학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엥겔스는 『반뒤링론』과 『독일고전철학의 종말』 등의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유물론은 철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유물론이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것이었다. 엥겔스가 『반뒤링론』 철학편의 서두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뒤링의 철학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살펴보자.

뒤링 씨에 따르면 철학이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의식의 최고 형식의 발전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지식과 의욕의 원리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엔겔스는 뒤링과 헤겔 두 사람 모두 이런 철학 개념으로부터 머리에서 나온 “논리적 도식”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연과 인간계가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및 역사와 일치하는 한에서만 원리들은 올바른 것으로 된다. 이것이 사태에 대한 단 하나의 유물론적 파악이며, 이와 반대되는 뒤링 씨의 파악은 관념론적 파악, 사태를 완전히 머리로 서게 하는 파악이며, 현실의 세계를 사상으로부터, 요컨대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 어딘가에 존재해 온 영원한 도식이나 그림자나 범주로부터 구성하는 파악이다.

여기서 보듯이 맑스와 엔겔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알튀세르의 철학 규정처럼 다른 학문 영역을 궁극적으로 규정짓는 논리적 영역으로 철학이라는 영역을 부정했다.

따라서 1960년대 동구권의 철학 논쟁에서처럼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변증법적 유물론 자체가 『반뒤링론』에서 엔겔스가 비판한 “논리 도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맑스주의에 어떤 철학적 영역을 부여하려는 시도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엔겔스의 후계자로 꼽히던 베른슈타인은 엔겔스가 죽자마자 당시 주류적인 제도 철학이었던 신칸트주의를 기초로 맑스주의를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반면 플레하노프를 비롯한 헤겔주의자들은 맑스의 초기 경력이 헤겔 좌파였음을 들어 맑스 철학의 본령은 헤겔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헤겔과 맑스

맑스는 저널리스트나 혁명가 이전에 헤겔 좌파 철학자로 사회적 경력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헤겔 좌파는 급진적 민주주의자에 머물렀지만, 산업노동자를 기반으로 당시 등장하고 있는 공산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점점 자유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헤겔 좌파와 결별했다.

하지만 헤겔주의적인 경향은 사실 맑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1844년의 『경제학·철학수고』까지는 개념과 용어에 있어 헤겔의 영향이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원고에서 맑스는 여전히 ‘소외’나 ‘유적 본질’ 같은 헤겔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맑스는 『정신현상학』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착안해 주관과 객관의 매개는 정신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소외는 노동의 소외로 드러난다.

그러나 헤겔 철학이 맑스의 여러 실증적 발견의 비계목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헤겔 철학적 관점은 1845-6년 『독일이데올로기』를 쓸 무렵에는 극복되고, 소외와 같은 범주는 더 이상 맑스에게서 중심적인 범주로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소외라는 문제의식은 잉여가치의 착취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맑스의 노동 개념도 점차 철학적 개념에서 벗어났다.

『독일이데올로기』는 독일고전철학은 독일 사회발전의 지체의 산물이며 철학 전체를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데카르트주의적인 자기의식적 주체를 비판하고 살아있는 인간, 즉 현실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을 전제 삼아 사변철학과의 결별을 주장한 것이 『독일

이데올로기』의 주 내용이었다.

사이먼 클락은 맑스가 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승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사회과학의 승리를 주장했다고 썼다. 굉장히 거칠기는 하지만 그럴듯한 말이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 이후 사실 철학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경제학 연구에 매진했다. 이 시기 이후 맑스와 엥겔스에게 철학은 결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철학이 주장하는 근원적인 논리 영역을 실증적 연구로 해체하려 했다.

철학의 근본문제

엥겔스는 실증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철학의 영역은 해체되고 있으며 중국에 가서는 그 영역에는 인간의 사유의 기본적인 법칙을 다루는 논리학과 변증법 정도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이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에서 엥겔스는 철학의 근본문제 제기했다. 스탈린주의 교과서들은 이를 근거로 철학사를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과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진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다. 철학의 역사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이 대등하게 투쟁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철학의 역사는 어디까지 관념론의 역사였으며 이때 유물론이나 경험론은 사회적 변동기에 간헐적으로 나타나 지배적인 형이상학에 비판하는 것이었지 결코 철학사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흔히 유물론과 관념론의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는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실 물질이 먼저 존재하는가, 정신이 먼저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그러나 철학의 내부에서 대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다.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의 현상에서 출발하는 철학은 정신 외부의 객관적 실재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 내부에서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벗어나서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문제라는 것이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유물론과 관념론의 선택문제로 가면 결국 유물론이 다시 철학으로, 즉 철학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초기 부르주아의 결정론적 유물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물질의 선차성을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정신 외부의 세계의 존재를 인간의 논리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은 그 존재를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다. 그렇다면 이게 물자체와 다를 게 뭐가? 경험비판론자들은 그래서 플레하노프와 레닌을 칸트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칸트와 유물론의 차이는 물자체의 존재를 의심하느냐, 인정하느냐의 차이 뿐이다.

물질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유물론은 체계의 완결성을 그 자체로 부정한다. 물질의 선차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적 논리로는 결코 완전히 체계화 될 수 없는 무한한 실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체계와 유물론은 양립할 수 없다. 완성된 유물론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것이다.

물질의 선차성 문제는 철학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파성의 문제이거나 알튀세르가 말했듯이 자연과학자들처럼 자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맑스와 엥겔스는 객관적인 세계조차 당파성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객관 자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과 철학의 복권

맑스는 『자본론』에서 부르주아 경제학 범주들의 논리적 의존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헤겔 변증법을 다시 갖고 들어왔다. 특히 『자본론』 1권의 상품과 화폐에서 가치형태가 전개되는 부분은 헤겔의 변증법적인 방법을 차용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스스로 “불장난”이라고 부른 변증법의 도입은 맑스주의 이론 내에서 (이미 부정된) 철학의 지위를 복권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우리는 흔히 ‘변증법’의 ‘변’자를 변할 ‘변(變)’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맑스주의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변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식이 변증법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변증법을 뜻하는 독일어 ‘Dialektik’이 원래 ‘대화하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변증법은 언어적인 논리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서구에서 변증술과 논리학과 수사학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고대와 중세의 철학자들은 변증술로 불리는 말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올바름을 증명하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흔히 궤변으로 빠지곤 했던 고대의 변증술을 정리하여 동일률·모순률·3단 논법을 중심으로 한 형식논리학을 체계화하고 근본적인 학문의 방법으로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철학적 방법으로서 변증술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새로운 학문의 방법으로 내세운 부르주아 지식인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들은 변증술이 스킨라 학파가 보여준 대로 말장난과 언어유희에 빠져 잘못된 지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대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었으며, 정신과 실재, 즉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철학은 주관과 실재의 관계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데카르트주의는 생각하는 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다. 물질을 소박하게 전제한 로크의 경험주의 인식론은 버클리나 흄에 의해 감각과 실재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너지고 회의주의로 빠져들었다.

헤겔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근대초기 철학자들이 부정한 변증술을 되살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모든 사유의 출발점에 놓고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헤겔은 변증법을 이용해 이렇게 빠져나간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미 나와 다른 것을 인식하고서만이 가능하다. 나와 남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헤겔은 “생각하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헤겔의 첫 주저 『정신현상학』은 의식→자기의식→이성→정신→절대정신으로 나아가는 체계를 갖고 있다. 헤겔은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헤겔은 개념과 실재의 불일치라는 긴장을 이용해서 실재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헤겔은 개념과 실재 사이에 긴장은 있으나 궁극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는 일치한다고 보았다. 논리의 모순과 실재와의 불일치는 개념운동이 전진하는 동력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헤겔의 『논리학』은 단순히 언어의 이치가 아니라 객관적 세계의 존재방식이 된다.

맑스나 엥겔스 같은 경우, 헤겔의 개념과 실재의 긴장성에 대해 높

이 평가했다. 다만 이를 화해시키는 변증법의 구성적 성질을 부정했으며 그것은 헤겔 철학이 관념론적 기초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겔 철학에 있어 변증법적 방법과 체계는 완전히 논리적 일관성을 이루는 그 자체로 완결된 체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념론적 토대에서 변증법을 뜯어낼 경우, 체계는 사라지고 언어와 실재의 긴장과 유동성만이 남을 것이다.

맑스는 『자본론』을 쓴 다음 자신과 헤겔 변증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념과 실재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은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이 등장할 때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는 개념과 실재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부재했음으로서 그것은 맑스가 생각한 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엔겔스는 『자연변증법』 덕분에 변증법을 객관적 존재의 법칙으로 만든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엔겔스 역시 헤겔 변증법에서 물질의 선차성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개념의 상대성과 유동성 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변증법에서는 개념들의 (그리고 이것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의) 경직성이 용해된다는 것, 변증법은 하나의 규정에서 다른 규정으로 유동하며 이행하는 끊임없는 과정이고 대립물들의 끊임없는 지양이며 상호침투라는 것, 따라서 일면적이고 경직된 인과관계는 상호작용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 유동하는 개념들

모순의 문제

엔겔스는 철학을 부정하며 남는 건 논리학과 변증법이라고 예상했

다. 이진 사람의 사고 형식은 남는다는 것이다. 이외 철학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실증과학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게 엥겔스의 예상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변증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과정도 변화운동하고 있고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입증하고 싶어서 한 작업이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이다.

그러나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자연에 변화와 발전의 법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제2인터내셔널에서 플레하노프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증법을 존재론화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엥겔스 자신도 문제가 있다. 특히 『반뒤링론』에서 그가 모순의 실재성을 주장한 것은 헤겔처럼 개념과 실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 소지가 있었다. 뒤링은 맑스가 『자본론』에서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언어적인 개념인 모순이 어떻게 실재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헤겔 철학에서 모순이 실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념론이니까.

그러나 유물론의 입장에서 모순을 말한다면 그것은 언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모순이란 언어적 논리상의 문제일 뿐 객관세계에 실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연에서 모순의 실재성을 주장한다면 개념과 실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논리적인 모순이 물질세계 속에서도 실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뒤링은 모순이 단순히 배리라고 주장하며 모순은 언어적인 것이라 사물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엥겔스의 뒤링의 비판에 모순의 실재성을 방어하는 입장을 보였다. 운동은 즉 모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동이나 모순이라는 사고 자체가 인간적 사고의 투영에 불과하다. 때문에 모순 문제는 실제로 뒤링의 비판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엥겔스도 이렇게 말한다.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지성은 정치와 사상에서 운동의 사상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상술한 모순이 여기서 이 지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성에 있어서는 운동이란, 모순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운동이 모순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지성”에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고대 그리스의 제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말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 논쟁은 대개 귀족지배와 민주정의 대립 속에서 나왔다. 변화와 운동을 강조하는 원자론자나 소피스트 등은 대개 민주정 지지자들이었고, 변화와 발전을 부정하거나 불변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찾는 파르메니데스, 피타고라스 같은 입장은 대개 보수파였다.

제논은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로 상식적 사고를 넘어 운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가상일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제논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변증술을 통해 운동의 부정 증명하려 했던 것인데, 이런 증명방식은 너무도 교묘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토끼와 아킬레우스의 달리는 논리적으로 논파되지 못했다. 결국 20세기 초에 들어서 버트란트 러셀이 집합론을 동원하여 이 역리를 논파할 수 있었다.

운동 자체가 모순은 아니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그것은 형이상학적 지성에게만 그럴 것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정신

은 언어에 간혀 있다. 언어란 기본적으로 분절적이고 문장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연속을 담아내지 못해. 공기의 진동을 어디에선가 끝내서 하는 것이 언어. 글에서도 기승전결과 같은 흐름의 단절 있다.

그런데 물질세계는 운동하고 연속하고 변화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역시 유한한 인간의 사고능력의 제한 때문이다. 무한이 모순적이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엥겔스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

그런데 이 지성이 운동의 불가해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의사와는 반대로 스스로 이 모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순이 사물과 과정 자체 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더욱이 실제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모순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다. 하지만 모순이 인간 지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객관적인 실재 속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결국 모순을 다루는 관념론이 물질세계의 법칙을 다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해져 버린다. 엥겔스는 더 나아가 맑스가 『자본론』에서 언급한 양질전화(화폐-자본)와 부정의 부정(사적소유, 자본주의적 전유,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정)을 강하게 방어했다. 이런 엥겔스의 언급들은 변증법이 단순한 사고의 방법을 넘어 객관 세계의 법칙으로 이해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물론 엥겔스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맑스는 자신의 역사적-경제학적 증명을 끝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다음과 같이 서술을 이어가고 있다 :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전유방식,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개인적인 사적 소유. 즉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사적 소유

의 첫 번째 부정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정은 자연적 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그 자신에 의해 생산된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等等 (이하의 앞에서 인용한 곳과 같다.) 따라서 맑스는 이 과정을 부정의 부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부름으로써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반대이다 : 그는 이 과정이 일부는 이미 실제로 일어났고 일부는 이제 틀림없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다음, 여기에 덧붙여 이 과정을 일정한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뒤링 씨가 부정의 부정이 여기서 과거의 태내에서 미래를 분만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거나 맑스는 사람들이 부정의 부정을 신용하여 토지 및 자본 공유제(이것 자체가 뒤링 류의 형태를 갖춘 모순이다)의 필연성을 납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역시 뒤링 씨의 순전한 날조이다.

그러나 이후 소위 맑스주의자들이 이런 추상화된 변증법적 원리로 부터 현실을 재단하고 “필연성을 납득할 것을 요구”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맑스주의와 헤겔의 부활

제2인터내셔널 시기, 독일 쪽에서는 오히려 철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에 헤겔 철학의 지배가 무너졌다. 이미 『자본론』을 쓰던 1860년대에 맑스가 헤겔이 죽은 개가 되 버렸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강단철학에서는 칸트로 복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운동을 신칸트학파라고 하며 독일 주류 철학은 신칸트학파가 장악했다.

엔겔스가 죽자마자 독일 사민당 내에서 철학 논쟁 벌어졌는데, 이는 수정주의 논쟁과 직결되어 있었다. 베른슈타인은 엔겔스의 유언집행

인으로 당시 독일 사민당에서 사실상 넘버 2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은 엥겔스가 죽자마자 맑스주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주의가 헤겔주의적인 목적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적인 개량을 위한 노선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시 제도학계에서 주류 철학이던 신칸트주의 끌어왔다.

하지만 베른슈타인과 대립한 카우츠키와 독일 사민당 전반이 받아들인 이론적 기초는 헤겔 철학이라기보다는 진화론이었다. 역사는 진화하는 유기체라는 관점은 이미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 전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사민당 내에서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러시아 맑스주의자인 플레하노프는 헤겔 철학을 가지고 와서 베른슈타인류의 신칸트주의와 맞섰다. 독일에서 헤겔 철학이 영향력을 잃었으나 러시아에선 19세기 중반 이후 오히려 헤겔 철학의 영향력이 커졌다. 플레하노프도 이런 지적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에서 철학적인 영역이 있다면서 헤겔 변증법을 단순한 방법이 아닌 철학적 체계로 받아들였다. 플레하노프가 창시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실 엥겔스가 제시한 양질전화, 부정의 부정 등 변증법의 원리를 물질의 변화와 발전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은 진화론과 별 차이 없었다. 플레하노프가 사실 중앙파적 입장을 계속 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플레하노프의 철학적 관점은 레닌을 비롯한 다음 세대의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대부분 플레하노프의 책을 보고 맑스주의를 공부했으며 플레하노프의 철학적 유물론을 맑스주

의 이론 발전에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였다. 결국 플레하노프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맑스주의가 보편화하면서 정통의 위치를 꺾치게 되었다.

레닌의 철학적 한계

1908년에 볼셰비키 내에서 경험비판론을 둘러싼 철학 논쟁 불붙었다. 경험비판론은 볼셰비키 좌파의 철학이었다. 경험비판론을 주장한 보그다노프는 당시 볼셰비키 2인자였다. 볼셰비키에는 상대적으로 경험비판론이나 창신론과 같은 이단적 경향이 많았다. 볼셰비키의 실천중심, 의지주의적 경향이 이들과 맞았기 때문이다. 레닌은 그런 철학적 경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1908년까지는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1908년에 새삼스럽게 경험비판론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시기 볼셰비키의 정치적 분열 때문이었다. 1차 러시아 혁명 이후 반동기로 들어가면서 볼셰비키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었다. 보그다노프를 비롯한 좌파는 소환파로 불렸는데, 이들은 1905년 혁명 이후 쏟아진 정치적 탄압 국면에서 러시아사민당이 혁명으로 열린 합법적 공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비합법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소환파의 주장이 실천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멘셰비키인 플레하노프가 경험비판론이라는 이단 철학을 볼셰비키 전체와 동일시하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레닌은 철학적 논쟁에 직접 개입하고 보그다노프 파와 조직적 분리를 감행했다.

19세기까지 자연과학자들이 알던 힘은 중력과 물질의 최소단위로 원자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원자핵과 전자가 발견되고,

그것들의 관계에서는 중력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려고 했던 자연과학자의 자신감이 무너지며 지적 혼란의 상황이 도래했다. 자연과학자들에게도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다.

이로부터 19세기 후반에 전반적인 철학의 경향은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재조직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제도철학의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이었던 신칸트주의, 마흐주의, 현상학적 흐름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현상을 중심적 개념으로 부각시켰다.

마흐주의를 창시한 에른스트 마흐는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영감을 준 유명한 과학자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데카르트적-뉴턴적인 물질 개념이 붕괴했다고 보고 과학의 인식론적 기반을 새롭게 놓으려 했다. 20세기 초 경험비판론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최신 철학으로 받아들여졌다.

레닌은 객관적 실재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며 경험비판론을 흠과 버클리의 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레닌은 유물론을 배타적으로 강조했다. 레닌의 유물론의 강조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데카르트적인 물질 개념이 아니라 “물질”을 의식 외부의 독립적 실재를 제시하는 범주라고 지적한 것은 탁월한 지적이었다. 문제는 모사와 반영이라는 단순한 모델에 의지하다보니 언어개념의 상대성을 파고드는 변증법적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제2인터내셔널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애국주의에 휩싸이며 파산하자, 레닌은 그 타락의 기초에 카우츠키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처음으로 헤겔의 『논리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레닌은 『자본론』은 헤겔의 논리학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레닌의 『철학노트』는 변증법의 핵심이 상호연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영감을 받아 레닌은 상호 연관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서 제국주의 체제를 분석했다. 그는 서유럽 노동계급의 보수화를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초과착취에서 찾고, 러시아혁명을 제국주의 체제를 끊어내는 혁명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과연 레닌의 『논리학』 연구가 제국주의 분석과 직결되는가? 맑스가 헤겔 철학의 소외론을 통해 노동가치의 착취라는 개념에 접근했듯이 레닌의 『논리학』 연구는 그를 제국주의 분석으로 안내하는 비계목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재 세계 자체가 변증법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는 없다. 세계의 상호연관은 변증법 이전에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내재적 속성에서 결과한 것이다.

스탈린주의 : 전근대적인 형이상학의 재래

레닌은 플레하노프의 철학적 유물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진리는 구체적이라는 그의 현실분석 방식은 철학에 독립적 영역을 부여하는 인식과 충돌하는 것이었지만 레닌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

플레하노프와 레닌의 철학적 유물론을 물려받아 세운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체계는 헤겔의 절대정신이 있는 자리에 그냥 물질을 대입한 것일 뿐이었다. 변증법적 논리의 제 법칙들은 그대로 물질 일반의 원리이기 때문에 논리와 실재는 변증법적 인식 속에서 일치한다.

엥겔스는 뒤링의 철학에 대해,

이리하여 우리의 소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 가지 부류로 정리되는 바, 요컨대 일반적 세계 도식, 자연의 원리들에 관한 학설, 끝으로 인간에 관한 학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순서에는 동시에 하나의 내적 논리적 질서가 깃들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 대해 통용되는 형식상의 원리들이 앞에 나오고, 이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적 분야들이 그 부차적 등급으로 뒤이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관계를 물질에 대한 일반 도식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 것으로 보는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은 아무리 봐도 엥겔스보다는 뒤링의 체계에 더 친화성을 가진다. 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유물론”이 아니라 뒤링이나 헤겔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관념론, 단지 스스로를 유물론으로 참칭하는 관념론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스탈린주의의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철학보다는 오히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유사하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주의에 기초를 했다면 스탈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개인이 배제되고 객관적 원리와 법칙으로 구성된 전근대 철학과 유사성을 지닌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부정되고 법칙과 원리를 파악한 현자들의 통치를 정당화한다는 면에서도 그것들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